

2019 하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

경상북도 포항시
- 제일지역아동센터



2019. 7

임*영

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봉사는 처음이어서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했었다. 처음에는 다들 잘 들어줄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집중시간도 길지 않고 수업 중 딴소리도 많이 해서 수업이 끝나면 진이 빠졌다. 하지만 장난치던 친구들이 만들기에 집중하거나 게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할 때는 영락없는 초등학생의 모습이 보여서 귀엽고 흐뭇했던 것 같다. 봉사를 시작할 때 센터장님이 해주셨던 학생들이 처음에 퉁퉁거리는 것이 이 사람이 정말 내편이 되어줄 사람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다. 덕분에 학생들이 말을 잘 듣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고 더 다가가려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 같다.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정교안뿐만 아니라 직접 준비한 자유교안들로 봉사를 진행해볼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.

홍*비

처음 이화봉사단을 신청하고 처음 보는 다른 과 벗들과 함께 봉사를 기획하는 것이 설레었다. 그러나 막상 봉사를 위해 준비를 하다보니,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렸고 사실 힘들었다.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우리 팀원들과 친해졌고 즐겁게 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 같다. 공식적으로 아동센터 봉사가 처음인데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. 아이들 통제가 정말 힘들었고 선생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다. 그래도 나와 다른 팀원들을 잘 따라주고 열심히 활동에 참여해주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. 다음에 이화봉사단을 할 여유가 생긴다면 아동센터와 정반대인 고등학교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.

이*연

고등학교 때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었지만 제일지역아동센터에서 내 예상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 고민이 많았었다. 이번 활동에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맡았었는데 한글을 모르는 7살 아이부터 중학교 2학년 친구들까지 있어 어떻게하면 최대한 많은 친구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었다. 다행히도 실제로 교안을 진행할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집중을 잘 해주었고 가장 걱정했던 역사 관련 수업을 진행할 때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줘서 너무나도 고마웠다. 5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이 우리 봉사단과 함께한 추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이나 배우고 느끼는 점들이 있었기를 바란다.

송*진

교육봉사를 하면서 솔직하고 발랄한 아이들의 에너지에 나도 힘을 받으면서 지냈다. 우리가 직접 기획한 활동들을 재밌게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. 평소에는 접하지 못할 아이들의 순수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다. 발표자료를 첫 교육봉사로 서툴게 준비했지만 재밌게 들어줘서 고맙웠다.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준비할 때는 더 아이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잘 준비할 수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. 아이들이 우리 교육 봉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다고 했을 때 큰 뿌듯함을 느꼈고 나도 아이들을 통해 많이 배운 것 같아 즐거운 경험이었다.

이*예

고등학생 때 경험했었던 지역아동센터 봉사에 대한 기억으로 우연히 이화봉사단 국내 교육 봉사에 지원하였다. 경쟁률이 낮지 않았기에 이화봉사단에 합격하리라곤 예상을 하지 못했다. 그렇게 합격 발표가 난 후, 팀장을 맡게 되면서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느꼈다. 프로그램 준비 때문에 팀원들과 함께 머리르 맞대며 회의를 했던 5월부터 8월에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을 실행해 옮기기까지 총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. 고등학생 땐 단순히 특정 과목을 지도하는데 그쳤지만, 이번 봉사는 이와는 방향성이 달랐다. 초등학생에 보다 집중되어있었기에,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이 점을 좀 더 고려했다면 아이들 반응이 더 좋았으리라 생각된다. 다소 아이들에겐 무겁고 어려운 내용들도 포함되어있었기 때문이다. 하지만,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배우는 점이 있기를 바란다. 끝으로 전체 프로그램은 혼자서가 아닌, 5명의 팀원과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셨던 담당자님이 계셨기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.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었지만, 전혀 아깝지 않고 오히려 나 또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.